

일상생활속의 염불신행(念佛信行)

법상스님(정광균)*

- I. 들어가면서
- II. 일상생활속의 염불신행(念佛信行)
 - 1. 불교수행의 근기론과 수행론
 - 2. 염불신행의 다양성과 포용성
 - 3. 일상생활속의 염불신행
- III. 나가는 말

■ 한글요약

본 논문은 “일상생활속의 염불신행”이라는 논제 하에 여러 경론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추적하여 근거로 삼아 논해보았다. 그 내용을 다시 간략히 정리하자면, 첫째로 염불신행의 근기론과 수행론에서 여러 경론에 언급된 근기론에서 수법행과 수신행, 사실단(四悉檀)과 삼취(三聚)를 검토해서 정업(淨業)을 살펴보았다. 둘째로 왕생신행의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해서는 『관경』을 통해서 다양한 왕생신행을 검토하여 염불신행의 다양성과 포용적인 염불신행을 고찰하였다. 셋째로 일상생활속의 염불수행은 불교의 중요한 신행인 오념문(五念門)을 비롯하여 오회(五悔)와 10대 행원(行願)을 포괄하여 포용하는 염불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아사리, 전 중앙승가대학 강사. 본 논문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과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에서 지원받아 연구하여 발표한 논문임.

이 참회방법과 연관된 것임을 고찰해 보았다. 그러면서 일상생활 속의 염불신행이 바로 가장 용이한 신행의 지침임을 검토해 보았다.

주제어 ● 염불, 신행(信行), 왕생, 사실단(四悉檀), 삼취(三聚), 오회(五悔)

I. 들어가면서

불교신행의 목적은 해탈열반을 체득하여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는 수행방법은 매우 다종다양하다. 말하자면 초기불교와 부파불교, 대승불교의 수행방법들인 팔정도(八正道)와 사무량심(四無量心)을 비롯하여 삼십칠조도품(三十七助道品)과 사섭법(四攝法), 십바라밀(十波羅密) 등이다. 하지만 이처럼 아무리 많은 불교의 수행방법이 제시되었을지라도 간략히 정리하면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에 통합된다. 말하자면 일상생활에서 신구의(身口意)를 바르고 조화롭게 어울려 사는 방법인 지계생활과 마음을 통일하여 안정된 삶을 이루는 선정의 일상생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이루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지혜생활이다. 이것은 바로 존재자가 존재하는 공간을 있는 그대로 가감이 없이 바라보면서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슬기로운 삶이다. 덧붙여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의 신행(信行)의 핵심은 바로 수신행(隨信行)과 육수념(六隨念), 오회(五悔)를 신행하여 오분법신(五分法身)을 체득하여 열반의 세계를 누린다.

이상의 내용을 수행자의 관점에서는 신앙과 수행이 결합한 신행(信行)이다. 이런 신행은 바람직한 의도인 원력을 가지고 모든 존재의 동일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조화롭고 더 없는 만족의 상태인 열반

을 누리며 행복하게 자력과 타력이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수행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행을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삼보(三寶)을 철저하게 믿고 신앙하는 삼업(三業)을 일상의 삶으로 바꾸어 생활하면서 신앙하고 수행하면서 일상의 삶을 경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행은 근기론(根機論)을 수반하여 수증론(修證論)까지 적용하면 매우 복잡하고 그 내용도 난해해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련된 경론에 드러난 내용을 검토하여 일상생활 속에서의 염불신행을 어떻게 손쉽게 실천해서 불교수행의 목적인 해탈열반을 체득할 것인가를 더듬어 보고자 한다. 그러나 모든 불교의 수행을 고찰하는 것은 지면상 곤란하기 때문에 요청받은 ‘일상생활속의 수행’이라는 대주제에 부합되는 내용을 담아내어 ‘일상생활속의 염불신행’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국한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고찰함에, 먼저 불교수행과 관련된 경론에 드러난 근기론(根機論)과 수행론(修行論)을 검토한 다음에, 염불신행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살펴보고서, 그 다음에 일상생활속의 염불신행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염불신행은 근기와 시기에 상응하는 수행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모든 불교의 신앙과 수행을 포괄하여 내포한 제행겸수(諸行兼修)이다. 그와 더불어 오회(五悔)와 십대행원(十大行願)을 담보한 염불신행이다. 이를 살펴봄에 먼저 『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필요한 내용을 논서에서 간취하여 활용해서 담론해 보고자 한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속의 염불신행이 여타의 신행과 어떻게 결합되고 정합되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하여 일상생활속의 염불신행이 결코 불교의 모든 수행의 목적과 결코 괴리되지 않음을 입증하여 염불신행을 일상생활에 권장하는 내용을 담아내고자 한다.

II. 일상생활속의 염불신행(念佛信行)

1. 불교수행의 근기론과 수행론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중요한 수행이란 지관(止觀)의 명상수행이라고 말해진다. 여기서 지(止, śamatha)는 40가지 주제에 집중한 삼매(定, samādhi)로 마음이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여 관(觀, vipaśyanā)하는 오정심관(五停心觀)과 사제관(四諦觀), 사념처(四念處)를 비롯한 여러 경론에서 설한 관법으로 제법실상을 있는 그대로 관조한다. 그런데 예로부터 수행의 내용을 간략히 참선과 간경, 염불과 주력으로 규정하였다. 주지하듯이 일반적으로 참선은 최상의 근기를 소유한 자가 전문적으로 속히 본래 부처를 체득하는 방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간경은 중근기의 소유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독하여 믿고 이해하여 실천함으로써 참선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끝으로 염불과 주력은 업장이 두텁고 하근기의 소유자가 참회를 동반한 불보살의 가피력을 빌려서 청정한 자성을 회복하여 해탈열반을 체득하는 방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근기와 수행은 또한 시기와 상응하는 신행이어야 그에 걸맞은 목적을 달성하기가 용이하다고 하였다. 만약 근기와 시기가 걸맞지 않으면 수행하는데 시간만 소비할 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근기와 시기를 어떻게 접합할 것인가? 불교에서 전해진 근기는 삼승(三乘)의 방편을 비롯하여 수법행(隨法行)과 수신행(隨信行), 사실단(四悉檀)과 유식의 오성각별(五性各別), 『기신론』과 정토의 삼취(三聚)와 삼배(三輩), 중국과 티벳에서는 상중하 삼사(三士)를 언급하고, 선종의 사빈주(四賓主)와 사료간(四料揀) 등은 모두 근기에 따른 지도방편들이었다. 이 가운데

수법행(隨法行)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해독하여 믿고 이해하여 실천을 통해 체득한다. 반면에 수신행(隨信行)은 능력이 열등한 자가 수법행자를 의지하여 삼보에 귀의해서 믿음을 바탕으로 해탈열반을 감득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근기론과 수행론에 대해서 사실단(四悉檀)과 삼취(三聚)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단(四悉檀)에 대해 『불광사전』에서는 실단은 범어로 Siddhanta, 빠알리어로 siddhāttha이다. 의역하면 성취(成就)·종(宗)·이(理) 등의 의미이다. 이는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여 인도하는 교법을 4개의 범주로 나눈 것이다. 즉, 세계실단(世界悉檀)과 각각위인실단(各各為人悉檀), 대치실단(對治悉檀), 제일의실단(第一義悉檀) 등으로 간략히 사실(四悉)이라고 말한다. 이는 『묘법연화경현의(妙法蓮華經玄義)』 권1 하에 의하면,¹⁾ 실단(悉檀)으로써 범한(梵漢)을 겸하여 일컫는 말이다. 실(悉)은 곧 변(遍)의 뜻이고, 단(檀)은 단나(檀那)로 의역하면 보시의 약칭인데, 곧 부처님께서 이 사법(四法)으로써 두루 일체중생에게 베풀어주기 때문에 사실단이라고 일컫는다고²⁾ 하였다.

이에 대해 『대지도론(大智度論)』 권1에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면,³⁾

-
- 1) 『妙法蓮華經玄義』(T33, 686b-691a) 참조하면 사실단을 근기론과 더불어 십중(十重)을 결부시켜 모든 교상을 연계시켜 논한다.
 - 2) 말하자면 실단(悉檀)이란 SIDH를 어근으로 하는 sidhyati의 과거분사형 siddha와 anta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남성명사로서 그 의미가 다양하다. 의역하면 인정된 정설, 견해, 원리, 기준, 공리 등등의 뜻을 가진다. 이를 현대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siddhanta는 ‘관점’이나 ‘기준’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붓다는 4가지 방편을 구사한 세계적인 관점, 개별적인 관점, 치료학적인 관점, 절대적인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 3) 『大智度論』 권1(T25, 58b) “復次，佛欲說第一義悉檀相故，說是《般若波羅蜜經》。有四種悉檀：一者、世界悉檀，二者、各各為人悉檀，三者、對治悉檀，四者、第一義悉檀。四悉檀中，一切十二部經，八萬四千法藏，皆是實，無相違背。佛法中，有以世界悉檀故實，有以各各為人悉檀故實，有以對治悉

부처님의 교법에는 갖가지 차별이 있는데, 언뜻 보면 마치 모순되는 듯하다. 만약 교설을 총괄하면 사실단(四悉檀)의 구별이 있다. 모두 참다운 의미가 있어서 서로 위배되지 않는다. 먼저 세계실단은 곧 세간의 법(法)에 수순한 것으로서 인연화합(因緣和合)의 의미를 설한 것이다. 또한 세간의 일반적인 사상·언어·관념 등의 사물에 나아가서 연기의 진리를 설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인류의 관계는 인연화합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하기 때문에 실체가 되지 않는다. 사람이 존재하는 근본은 일반 세속의 견해이다. 이에 적합한 세속의 법을 설하여 사뭇 사람들을 수순하게 함으로써 범부를 기쁘게 해서 세간의 바른 지혜를 얻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실단 또는 낙욕실단(樂欲悉檀)이라고 일컫는다. 다음에 각각위인실단은 간략히 위인실단(爲人悉檀)이라고 한다. 즉, 중생은 각각의 근기와 능력이 달라서 각종의 세간을 벗어나는 실천할 법을 설해서 중생으로 하여금 선근을 내게 하기 때문에 생선실단(生善悉檀)이라고 일컫는다.

세 번째 대치실단은 곧 중생의 탐진치만의견(貪瞋癡慢疑見) 등의 번뇌에 침을 놓는 것으로 병에 응해서 법약(法藥)을 준비해 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생의 번뇌와 악업을 소멸하여 제거하는 가르침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능히 중생의 악업을 끊어주기 때문에 단악실단(斷惡悉檀)이라고 일컫는 응병여약(應病與藥)의 오정심관(五停心觀)이다. 네 번째 제일의실단(第一義悉檀)은 곧 일체 논의하는 언어를 파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직접 제일의란 말로써 제법실상(諸法實相)의 이치를 밝히어 중생으로 하여금 참되고 올바른 교법에 계합해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또한 입리실단(入理悉檀)이라고 일컫는다.

또 이에 대해서 『법화현의』⁴⁾에,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두

檀故實，有以第一義悉檀故實”

4) 『妙法蓮華經玄義』(T33, 687a) “第一義悉檀者，有二種：一、不可說；二、可說。不可說者，即是諸佛、辟支佛、羅漢所得真實法。引偈云：「言論盡竟，心

가지 제일의실단(第一義悉檀)을 들어내고 있다.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일체의 진실과 일체의 진실이 아닌 것, 일체의 진실과 또한 진실이 아닌 것, 일체의 진실이 아닌 것과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닌 것 등의 사구(四句)가 모두 제법의 실상이라고 하였다.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것은 곧 부처님께서 증득한 자내증(自內證)의 이치이다. 동서⁵⁾에 사실단을 가지고 천태종의 화법사교(化法四教)인 장(藏)·통(通)·별(別)·원(圓)의 사교(四教)를 사제(四諦)에 배대한다. 즉 세계실단의 장교는 생멸(生滅)하는 사제에 배대하고, 위인실단의 통교는 무생(無生)의 사제에 배대하며, 대치실단의 별교는 무량(無量)의 사제에 배대하고, 제일의실단의 원교는 무작(無作)의 사제에 배대한다. 이 밖에도 동서에⁶⁾ 사수(四隨)가 바로 사실단임을 지목한다. 즉, 부처님은 근기를 따라서 갖가지로 차별하여 중생이 기꺼워하는 욕망과, 중생의 근기에 마땅함, 중생의 미혹함에 대치함, 제일의제를 따라서 설법하신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일의실단을 진제(眞諦)라 말하고 나머지는 속제(俗諦)라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사실단은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4가지 교화방법이다. 세속적인 바람에 걸맞은 법을 설법하여 범부를 기쁘게 하면서 세간의 밝은 지혜를 얻게 하는 세계실단은 일반적 관점이다. 다음에 중생 각각의 성질과 능력에 따라 그에 적합한 출세간적인 실천을 가르치는 각각위인실단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관점이다. 셋째로 중생의 번뇌와 악업을 깨우쳐서 없애는 대치실단은 치유학적 관점이다. 끝으로

行亦訖，不生不滅，法如涅槃，說諸行處，名世界；說不行處，名第一義。二、約可說者，一切實、一切不實、一切亦實亦不實、一切非實非不實，皆名諸法之實相”

5) 『妙法蓮華經玄義』(T33, 687c) “對諦者，直對一番四諦，如前說。廣對四種四諦者，四種四諦，一一以四悉檀對之。復總對者，生滅四諦對世界，無生四諦對為人，無量四諦對對治，無作四諦對第一義”

6) 『妙法蓮華經玄義』(T33, 783c) “四隨者。問：實相一法，何故名義紛然？答：隨彼根機，種種差別，赴欲、赴宜、赴治、赴悟”

진리를 직접 가르쳐 깨달아 들어가게 하는 제일의실단은 궁극적 관점으로 입리실단(入理悉檀)에 이른 제법실상을 깨달은 해탈열반이다. 다음 믿음으로 발심을 성취하여 정정취에 들어감을 설한 『기신론』⁷⁾과 더불어 『무량수경』의 삼취(三聚)는,

그 어떤 중생이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반드시 **정정취(正定聚; 성불이 결정된 자들)**에 머물게 된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부처님의 국토(극락세계)에서는 **사정취(邪定聚; 성불할 수 없는 자들)**와 **부정취(不定聚; 성불을 결정할 수 없는 자들)**가 없고, 시방의 항하강 모래수만큼의 모든 부처님 여래께서 모두 함께 무량수불의 위신력과 공덕이 불가사의함을 찬탄하신다. 모든 어떤 중생이라도 그 **명호(名號)**를 듣고 신심을 내어 환희하는 마음을 일으키거나 나아가 한 생각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회향하여 그 국토에 태어나길 발원한다면 곧 왕생하여 불퇴전(不退轉)의 지위에 머물게 된다. 다만 5역죄(逆罪)를 저지른 자와 정법을 비방하는 자는 제외한다.⁸⁾

라고 믿음과 회향발원과 정정취의 관계를 설하였다. 말하자면 무량수 또는 무량광이신 무량수의 명호를 듣고 믿는 마음을 내어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거나 한 생각만이라도 자기가 지은 선근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길 발원한다면 왕생하여 물러남이 없는 불퇴전의 초지(初地)에 머문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와 스승, 아라한, 부처님 몸을 훼손한 자와 화합을 깨드린 자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

7) 『大乘起信論』(T32, 580b) “信成就發心者, 依何等人、修何等行, 得信成就堪能發心? 所謂依不定聚眾生, 有熏習善根力故, 信業果報, 能起十善, 厭生死苦、欲求無上菩提, 得值諸佛, 親承供養修行信心, 經一萬劫信心成就故, 諸佛菩薩教令發心; 或以大悲故, 能自發心; 或因正法欲滅, 以護法因緣, 能自發心。如是信心成就得發心者, 入正定聚, 畢竟不退, 名住如來種中正因相應”

8) 『佛說無量壽經』 卷下(T12, 272b) “其有眾生生彼國者, 皆悉住於正定之聚。所以者何? 彼佛國中無諸邪聚及不定之聚, 十方恒沙諸佛如來皆共讚歎無量壽佛威神功德不可思議。諸有眾生聞其名號信心歡喜, 乃至一念, 至心迴向願生彼國, 即得往生住不退轉, 唯除五逆、誹謗正法”

는 자는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삼배중생에 대해서 경전에 언급된 내용에 먼저 상배자를 보면,

시방세계에 있는 여러 천신과 인간들로서 지극한 마음으로 저 나라에 태어나길 발원함에 무릇 세 무리가 있다. 그 중에서 **상배자(上輩者)**란 집과 욕망을 버리고 사문이 되어 **보리심(菩提心)**을 일으켜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량수불을 염하며 여러 가지 공덕을 닦아 극락세계에 왕생하길 원하는 사람들이다. 이들 중생이 임종할 때는 무량수불께서 여러 대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신다. 그는 곧바로 그 부처님을 따라 극락국토에 왕생하여 문득 7보로 된 연꽃 가운데 자연히 화생(化生)하여 불퇴전에 머물러 지혜롭고 용맹하며 신통자재하게 된다.⁹⁾

라는 내용에서 최상의 근기를 소유한 자인 상배자는 집과 욕망을 버리고 출가하여 수행하는 사문이 되어 깨달으려는 마음을 발하고 무량수불을 오로지 한결같이 염하면서 온갖 선업의 공덕을 닦아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길 발원한다. 그러면 임종할 때에 무량수불인 아미타불께서 직접 극락세계의 대중들과 함께 마중하러 오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극락세계에 자연스럽게 화생하여 불퇴전(不退轉)의 경지에 올라 지혜와 용맹을 갖추어 신통력을 갖추어 자재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관무량수경』에서는 대승의 수행자라고 하였다. 다음에 중근기의 중배자를 보면,

그 중에서 **중배자(中輩者)**란 시방세계에 있는 여러 천신과 인간들로서 지극한 마음으로 그 나라에 태어나길 발원하여 비록 사문이 되어서 큰 공덕을 쌓지 못하였지만, 응당 위없는 **보리심**을 일으켜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량수불을 염한다. 다소라도 선을 닦고, 계율을 받들어 지키며,

9) 『佛說無量壽經』 卷下(T12, 272b-c) “十方世界諸天人民, 其有至心願生彼國, 凡有三輩。其上輩者, 捨家棄欲而作沙門, 發菩提心, 一向專念無量壽佛, 修諸功德願生彼國。此等眾生臨壽終時, 無量壽佛與諸大眾現其人前, 即隨彼佛往生其國, 便於七寶華中自然化生, 住不退轉, 智慧勇猛, 神通自在”

탑과 불상을 일으켜 세우고, 사문에게 밥과 음식을 공양하고, 부처님 전에 비단 일산을 바치고, 등불을 밝히고, 꽃을 홀고 향을 사른다.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나라(극락세계)에 태어나길 발원한다. 그 사람이 임종할 때에 무량수불께서 화신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시는데, 그 광명과 상호가 구족되어 실제의 부처님과 같이 여러 대중들과 함께 그 사람의 앞에 나타나면 화신 부처님을 따라 그 나라(극락)에 왕생하여 불퇴전의 지위에 머무는데, 공덕과 지혜는 상배자 다음으로 수승하다¹⁰⁾

라고 중근기의 중배자에 대해서 설하였다. 여기서 중근기의 소유자는 비록 출가하지는 않았지만 온갖 공덕의 불사를 지어 그 지은 공덕을 닦은 것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길 발원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재가자로서 오계와 팔계계를 지키면서 온갖 불사와 스님들에 대한 공양, 나아가 부처님을 찬양하는 염불을 하면서 갖가지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회향발원에 의해서 아미타불의 화신이 화보살과 대중을 보내어 맞이한다는 것이다. 다음에 하근기의 하배자를 보면,

그 중에서 **하배자(下輩者)**란 시방세계에 있는 여러 천신과 인간들로서 지극한 마음으로 그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설령 온갖 공덕을 짓지 못하였지만, 마땅히 위없는 보리심을 일으키고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단 십념(十念)만이라도 무량수불을 염하면서 그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한다. 혹은 심오한 법을 듣고 환희심으로 믿고 즐거워하여 의혹을 일으키지 않으며, 일념(一念)만이라도 저 무량수불을 생각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그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이 임종할 때에 꿈결에서 부처님을 뵈고 왕생하게 되며, 그 공덕과 지혜는 중배자 다음으로 수승하다.¹¹⁾

10) 『佛說無量壽經』 卷下(T12, 272c) “其中輩者, 十方世界諸天人民, 其有至心願生彼國, 雖不能行作沙門大修功德, 當發無上菩提之心, 一向專念無量壽佛. 多少修善, 奉持齋戒, 起立塔像, 飯食沙門, 懸繪然燈, 散華燒香, 以此迴向願生彼國. 其人臨終, 無量壽佛化現其身, 光明相好, 具如真佛與諸大眾現其人前, 即隨化佛往生其國, 住不退轉, 功德智慧次如上輩者也”

11) 『佛說無量壽經』 卷下(T12, 272c) “其下輩者, 十方世界諸天人民, 其有

라고 최하의 근기자에 대해서 설하였다. 여기서는 상배자와 중배자와는 달리 믿음과 발원, 그리고 십념(十念)이나 아니면 지극한 마음으로 무량수불을 염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길 발원하면 꿈결에서라도 부처님을 친견하여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삼배왕생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은 보리심(bodhicitta)을 발하는 것이다. 이것은 왕생하여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굳건한 다짐이기도 하다.

이상의 내용은 『무량수경』의 근기론과 수행론에 입각한 붓다의 교설을 신원행(信願行)을 결합한 염불신행을 말한 것이다. 불교의 신앙과 수행을 실천하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의 근기를 오정심관(五停心觀)에 입각해 자기의 역량을 측량해 보고서 자기에게 적합한 수행방편을 실천하는 것이 타당함을 드러낸 것이다.¹²⁾ 그와 동시에 시기와 근기가 상응하는 신행이 결부될 때에 소기의 목적을 보다 손쉽게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에 왕생신행의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해서 『관무량수경』을 통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염불신행(念佛信行)의 다양성과 포용성

대승불교의 교의와 신행은 다양하면서도 포용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를 실천하여 체득하려면 때론 당황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근기론과 수행론을 잘 이해하고 수행에 들어가면

至心欲生彼國，假使不能作諸功德，當發無上菩提之心，一向專意乃至十念，念無量壽佛，願生其國。若聞深法歡喜信樂，不生疑惑，乃至一念念於彼佛，以至誠心願生其國。此人臨終夢見彼佛，亦得往生，功德智慧次如中輩者也”

12) 다탐(多貪)자는 부정관(不淨觀), 다진(多瞋)자는 자비관(慈悲觀), 우둔자는 인연관(因緣觀), 산만한 자는 수식관(數息觀), 교만한 자는 계분별관(界分別觀)을 통해서 수행의 내용을 확립한다.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대승불교의 이론과 실천에서 어느 방편이 자기에게 적합한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리고 정토교학에서 말하는 왕생(往生)의 개념¹³⁾과 목적¹⁴⁾을 사후 세계로만 간주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왕생은 사후에 직접 극락 세계로 가는 것임과 동시에 현세에서 마음을 정화시켜 생활을 안정시키는 작용과 더불어 깨달음을 자내증(自內證)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왕생의 실행은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보한다. 그 가운데 최상의 목적은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왕생은 일반적으로 생명의 빛이 꺼지면 다른 세계에 가서 태어나는 것이다. 장엄한 극락[Sukhāvāṭī-vyūha]에 왕생하거나 시방에 왕생하거나 삼계 가운데 도솔천에 왕생하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도솔천의 왕생을 회구하는 경향이 강하였지만, 한·중·일 삼국은 정토경론에 의거해 극락에 왕생하는 것을 실행으로 삼았다. 이는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것이다. 정토경론에서는 이것을 목적

13) 사람이 임종할 때에 타방세계에 태어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왕생은 성불과 죽음의 대명사이다. 왕생은 넓은 의미로 말하면 삼계의 육도와 제불의 정토에 수생하지만 아미타불의 서방정토가 성행한 이후에 극락세계에 수생함을 중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왕생정토를 분류하면 극락왕생과 시방왕생, 도솔왕생, 연화장왕생 등을 말하고, 왕생하길 발원하면 원생(願生)이라고 말한다. 극락왕생은 바로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왕생론』과 제사들에 의거해서 말하면 염불왕생(念佛往生)과 제행왕생(諸行往生), 조념왕생(助念往生), 문명왕생(聞名往生) 등과 즉변왕생(即便往生)과 당득왕생(當得往生), 즉왕생(即往生)과 변왕생(便往生), 체실왕생(體失往生)와 불체실왕생(不體失往生) 등과 정념왕생(正念往生)과 광란왕생(狂亂往生), 무기왕생(無記往生), 의념왕생(意念往生), 구칭염불(口稱念佛)의 수행을 통해서 왕생하는 타력염불왕생(他力念佛往生)과 진실염불왕생(眞實念佛往生), 정견염불왕생(正見念佛往生), 직심염불왕생(直心念佛往生) 등이다. 법상(2011), 1-26 참조

14) 『佛說阿彌陀經』(T12, 348a) “舍利弗！若有人已發願、今發願、當發願、欲生阿彌陀佛國者；是諸人等，皆得不退轉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於彼國土若已生、若今生、若當生。是故舍利弗！諸善男子、善女人若有信者，應當發願生彼國土”

으로 왕생하는 방법과 수행방법을 설하며, 여타의 대승불교에서도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설한다. 정토경론에서는 왕생이 바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깨달음의 자리인 초지의 불퇴전지(不退轉地)에 들어가서 남이 없는 깨달음의 제8부동지를 터득한 무생법인(無生法忍)과 단 한 생만으로 부처의 경지에 오르는 등각의 지위로서 보살 최후의 일생보처(一生補處)에 올라 마침내 성불한다는 교설을 세웠다.

그 내용에 대해서 『관무량수경』(이하 『관경』)의 내용을 통해서 추적해 보기로 한다. 『무량수경』에서는 근기에 따른 삼배왕생을 설하였다면, 『관경』에서는 삼복왕생(三福往生)을 설한다. 『관경』이 설해진 배경에는 인간의 실제적인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이 고뇌하는 내용인 왕사성의 극단적 비극이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은 위제회와 아난의 요청에 응대해서 왕생할 수 있는 16가지 관법¹⁵⁾에 대해서 설법하신다. 그 내용 중에,

아미타불은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신다. 너는 마땅히 생각을 집중하여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국토를 분명히 관하라. 내가 지금 그대를 위하여 많은 비유로써 자세히 말해 주겠다. 또한 미래세상의 모든 범부로 하여금 청정한 업[淨業]을 닦아 서방의 극락국토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저 국토에 태어나고 싶으면 마땅히 삼복(三福)을 닦아야 한다. 첫째는 효도하여 부모를 봉양하고, 스승을 받들어 모시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고, 10선업(善業)을 닦는 것이다. 둘째는 3보에 귀의하며 갖가지 계(戒)를 다 갖추고 위의(威儀)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는 보리심을 내어 인과(因果)를 깊이 밟고 대승경전을 독송하며, 나아가다

15) 『관경』의 왕생을 위한 관법은 依報觀와 正報觀이다. 먼저 정보관은 像想觀·眞身觀·觀音觀·勢至觀·三輩觀을 들 수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의보관으로 日想觀·水想觀·寶地觀·寶樹觀·寶池觀·寶樓觀·華座觀이다. 여기서 삼배관을 제외한 13관은 定善이고 삼배관은 散善이다. 여기서 관불삼매와 염불삼매의 과정을 통해서 왕생극락을 성취한다. [법상(2016), 9-48 참조]

른 수행자들에게 행하도록 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 가지를 정업(淨業)이라고 부른다. 부처님께서 위제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제 알겠는가? 이 세 가지 업이 바로 과거·미래·현재 3세(世)의 모든 부처님의 정업(淨業)과 정인(正因)이다.¹⁶⁾

라고 정업(淨業)의 삼복왕생을 설하였다. 위의 설법은 3가지 왕생의 복(福)이 되는 청정한 생활의 지침이다. 더구나 복이 되는 실천을 언급한 것을 극락정도로 가는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스승을 잘 모시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생명을 해치지 않고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에서 계율의 근간으로 삼는 열 가지 선업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삼보에 귀의하고 계율을 수지한 불자의 생활이다. 끝으로 깨닫겠다는 마음을 발하고 인과를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고 독송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왕생의 청정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실천할 내용임과 동시에 삼세제불의 청정한 수행인 정업(淨業)이면서 왕생의 올바른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삼복왕생의 설법에는 염불(buddhānusmṛti)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정토교학의 일곱 가지 의보관(依報觀)과 아홉 가지 정보관(正報觀) 가운데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에는 부처님을 상상하라. 왜냐하면 제불여래(諸佛如來)께서는 바로 법계신(法界身)이므로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상상할 때 그 마음이 곧 32상(相)과

16) 『佛說觀無量壽佛經』(T12, 341c) “阿彌陀佛去此不遠；汝當繫念，諦觀彼國淨業成者。我今為汝廣說眾譬，亦令未來世一切凡夫欲修淨業者，得生西方極樂國土。欲生彼國者，當修三福：一者、孝養父母，奉事師長，慈心不殺，修十善業。二者、受持三歸，具足眾戒，不犯威儀。三者、發菩提心，深信因果，讀誦大乘，勸進行者。如此三事名為淨業。佛告韋提希：汝今知不？此三種業，乃是過去、未來、現在三世諸佛淨業正因”

80종호(種好)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 부처를 지으면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다. 제불의 지혜 바다는 마음에서 생긴다. 그러므로 마땅히 한마음으로 생각을 집중하여 저 부처님·여래·응공·정변지를 관해야 한다. 저 부처님을 상상하는 사람은 먼저 마땅히 형상을 상상하라. 눈을 감거나 눈을 뜨거나 염부단금색과 같이 찬란한 하나의 보배의 불상이 저 꽃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라.¹⁷⁾

라는 정보 제8 상상관(像想觀)이다. 여기서 제불여래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처님을 상상할 때에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 부처를 지으면 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것이다. 아미타불의 지혜광명인 성소작지인 불가사의지와 묘관찰지인 불가칭지, 평등성지인 대승광지, 대원경지인 무등무륜최상승지가 우리의 마음에서 생긴다는 것이다.¹⁸⁾ 그러나 막연하게 부처님을 상상하기보다는 연화좌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을 생각하므로 해서 점차 무형무상의 법신을 체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17) 『佛說觀無量壽佛經』(T12, 343a) “次當想佛。所以者何? 諸佛如來是法界身, 遍入一切眾生心想中; 是故汝等心想佛時, 是心即是三十二相、八十隨形好。是心作佛, 是心是佛。諸佛正遍知海, 從心想生, 是故應當一心繫念, 諦觀彼佛、多陀阿伽度、阿羅呵、三藐三佛陀。想彼佛者, 先當想像。閉目開目, 見一寶像, 如閻浮檀金色, 坐彼華上”

18) 『遊心安樂道』(T47, 112a-b) “第三、明疑惑患難者。於中初明所疑境; 次明對治疑想; 後明生彼化胎優、劣。言明所疑之境者。如下文曰: 「若有眾生, 以疑惑心修功德願生彼國, 不了佛智、不思議智、不可稱智、大乘廣智、無等無倫最上勝智, 於此諸智疑惑不信, 然猶生罪福, 修習善業, 願生彼國。此諸眾生生彼宮殿, 五百歲中不聞三寶, 故說邊地」乃至廣說, 此言佛智, 是總標句; 此言佛智, 是總標句; 下之四句各顯四智。不思議智者, 是成所作智, 此智能作不思議事, 謂如不過丈六之身, 而無能見頂者; 不增毛孔之量, 而遍十方世界; 一念稱名, 永滅多劫重罪; 十念念德, 能生界外勝報。如是等事, 非其所測, 是故名為不思議智。不可稱智者, 是妙觀察智, 此智觀察不可稱境, 謂一切法如幻、如夢, 非有、非無, 離言絕慮, 非逐言者所能稱量, 是故名為不可稱智。大乘廣智者, 是平等性智, 此智廣度, 不同小乘, 謂遊無我, 故無不我; 無不我, 故無不等攝, 以此同體智力, 普載無邊有情, 皆全同至無上菩提, 是故名為大乘廣智。無等、無倫、最上勝智者, 正是如來大圓鏡智, 始轉本識, 方歸心原, 一切種境, 無不圓照, 是名為大圓鏡智”

염불은 염불의 네 가지 염불¹⁹⁾ 가운데 관상염불(觀想念佛)과 실상염불(實相念佛)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 중생은 이러한 깨달음을 완성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고뇌를 퇴치할 내용이 절실하기 때문에 구품삼배(九品三輩)의 근기론과 수행론을 포함한 정업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함께 설한다.

서방정토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9품(品)으로 태어난다. **상품상생(上品上生)**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다. 만일 어떤 중생이 저 나라에 태어나기를 위하여 세 가지 마음을 내면 곧 왕생하게 되는데, 무엇이 그 세 가지인가? 첫째는 지성스러운 마음[至誠心]이고, 둘째는 깊은 마음[深心]이며, 셋째는 회향하여 발원하는 마음[迴向發願心]이다. 이 세 가지 마음을 갖추면 반드시 저 국토에 태어난다. 또 세 종류의 중생이 왕생하게 된다. 어떤 것이 세 종류인가? 첫째는 자심(慈心)으로 살생하지 않고 모든 계행을 갖춘 사람이며, 둘째는 대승방등경전(大乘方等經典)을 독송하는 사람이고, 셋째는 6념(念)을 수행하고 회향하여 저 불국토에 태어나기를 발원하는 사람이다. …… **상품중생(上品中生)**은 반드시 방등경전(方等經典)을 수지(受持)하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잘 이해하고, 심오한 진리에 대하여 마음이 놀라거나 동요하지 않으며, 인과(因果)를 깊이 믿고 대승을 비방하지 않아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구하는 사람이다. …… **상품하생(上品下者)**도 역시 인과를 믿고 대승법을 비방하지 않으며, 오직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켜 이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²⁰⁾

19) 일반적으로 염불의 종류는 圭峰宗密이 구분한 稱名(持名)念佛과 觀像念佛, 觀想念佛, 實相念佛을 말하고, 『十住毘婆沙論』에서는 色身念佛과 法身念佛, 實相念佛로 구분한다.

20) 『佛說觀無量壽佛經』(T12, 344c-345a) “上品上生者, 若有眾生願生彼國者, 發三種心, 即便往生。何等為三? 一者、至誠心。二者、深心。三者、迴向發願心。具三心者必生彼國。復有三種眾生, 當得往生。何等為三? 一者、慈心不殺, 具諸戒行。二者、讀誦大乘方等經典。三者、修行六念, 迴向發願生彼佛國……上品中生者, 不必受持讀誦方等經典。善解義趣, 於第一義心不驚動, 深信因果, 不謗大乘; 以此功德, 迴向願求生極樂國……上品下生者, 亦信因果, 不謗大乘, 但發無上道心, 以此功德, 迴向願求生極

이상은 제14관인 상품삼배(上品上輩)의 왕생요인에서는 최상의 근기를 소유한 왕생할 사람의 마음가짐과 실천내용을 설하고 있다.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위에서 검토한 『무량수경』의 내용보다 상세하게 설해지고 있다. 여기서 지극히 성실한 마음과 깊이 마음속에 아로새긴 마음인 결정신심(決定信心),²¹⁾ 대승의 가장 주목할 회향발원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으로 자비심을 가지고 살생하지 않고 계율을 준수하며 대승경전을 수지하는 것이다. 또한 초기불교 이래 염불과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을 신행하면서 인과를 굳게 믿고, 나아가 대승을 비방하지 않고 지은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왕생을 발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업(淨業)의 다양성과 더불어 포용성이다. 다음 제15관인 중근기의 중품삼배(中品三輩)에 대해,

중품상생(中品上生)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일 어떤 중생이 5계(戒)를 수지하고 8계(齋戒)를 지니며, 모든 계를 받아 지키며, 5역(逆)을 짓지 않으며, 갖가지 과실과 죄악이 없어 이러한 선근(善根)으로써 회향하여 서방의 극락세계에 태어나길 구하는 경우이다. …… **중품중생(中品中生)**이란 어떤 중생이 하루 낮 하룻밤 동안 8계(齋戒)를 지니거나 하루 낮 하룻밤 동안이라도 사미계(沙彌戒)를 지니거나, 하루 낮 하룻밤 동안 구족계(具足戒)를 지켜 그 위의(威儀)에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길 원하는 경우이다. …… **중품하생(中品下生)**이란 어떤 선남자나 선여인이 부모를 효도로써 봉양하고, 세상에서 인의(仁義)를 행하다가 목숨이 끝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 그가 아미타불국토의 즐거운 일을 자세히 말해 주고, 또 법장(法藏)비구의 48대원(大願)을 말해 주어 이러한 것을 듣고 난 뒤에 목숨이 끊어진다면, 마치 힘센

樂國”

21) 『大乘起信論』(T32, 580c) “信成就發心者, 發何等心? 略說有三種。云何為三? 一者、直心, 正念真如法故。二者、深心, 樂集一切諸善行故。三者、大悲心, 欲拔一切眾生苦故”

장사가 팔을 굽혔다가 펴는 것과 같은 잠깐 사이에 곧 서방의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는 경우이다.²²⁾

라고 성문승의 수행자를 위해서 왕생정토에 대해서 설하였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오계와 팔재계, 사미계, 구족계를 하루라도 준수하고 오역죄를 짓지 않으며,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인의예지를 실천함에 선 지식의 선도를 받아 아미타불의 발원에 부합하여 극락세계에 왕생을 발원하라는 중근기자들이다. 그러면 일반 재가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해지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설법한 16관인 하품삼배(下品三輩)에 관해서 설법한 내용을 보면,

하품상생(下品上生)이라는 것은 혹 어떤 중생은 비록 방등경전(方等經典)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많은 악업을 짓는데,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악법(惡法)을 많이 지으면서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다가 목숨이 끝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 그가 대승 12부경(部經)의 첫머리 이름을 말해 주면, 이와 같은 모든 경전의 이름을 들은 까닭에 1천 겁 동안 지은 지극히 무거운 악업이 없어진다. 지자(智者)가 다시 합장하여 손을 마주잡고 ‘나모아미타불(Namo amita-buddha)’을 부르라고 가르치면, 부처님 명호를 부른 까닭에 50억 겁 동안의 생사의 죄가 없어진다. 이 때 저 부처님께서 곧 화신불(化身佛)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화신보살(化身菩薩)을 보내시면, 행자 앞에 이르러 찬탄하기를, ‘장하다, 선남자여. 네가 부처님 명호를 부른 까닭에 죄가 소멸되어 내가 너를 맞으러 왔다’고 한다. 이 말을 하고 나면 수행자가 곧 화신불의 광명이 그 방에 찬 것을 보고 나서 환희하며 목숨이 끊어져 보배 연꽃을 타고 화신불의 뒤를 따라 보배 연못 가운데 태어난다.²³⁾

22) 『佛說觀無量壽佛經』(T12, 345b-c) “中品上生者, 若有眾生受持五戒, 持八戒齋, 修行諸戒, 不造五逆, 無眾過惡; 以此善根, 迴向願求生於西方極樂世界……中品中生者, 若有眾生, 若一日一夜持八戒齋, 若一日一夜持沙彌戒, 若一日一夜持具足戒, 威儀無缺。以此功德, 迴向願求生極樂國……中品下生者, 若有善男子、善女人, 孝養父母, 行世仁義, 此人命終時, 遇善知識為其廣說阿彌陀佛國土樂事, 亦說法藏比丘四十八大願。聞此事已, 尋即命終。譬如壯士屈伸臂頃, 即生西方極樂世界”

라고 일반 재가자(선남자나 선여인)의 왕생을 설하였다. 여기서는 대승경전과 12부경의 명칭과 더불어 ‘나모아미타불’을 염할 때에 화현한 아미타불과 보살들이 망자의 앞에 나타나서 부처님의 명호를 불렀기 때문에 맞이하러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50억겁의 죄가 소멸하여 화신불을 따라서 왕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마침내 재가자가 왕생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신행을 포용한 ‘나모아미타불’의 칭명염불을 거론한 것이다. 다음 하품중생에 관해서,

하품중생(下品中生)이라는 것은, 혹 어떤 중생이 5계나 8계나 구족계를 헐뜯거나 범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현재 승가의 재물을 훔치고, 공양 받은 승려의 물건을 도둑질하며, 청정하지 못한 설법을 하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온갖 죄업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자신이 옳다고 장엄한다면, 이와 같은 죄인은 악업으로 인하여 마땅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나니, 그가 목숨이 끊어지려 할 때 지옥의 수많은 불꽃이 일시에 몰려들게 된다. 그러나 이 때 선지식을 만나 그 선지식이 대자비로써 이 사람을 위하여 ‘아미타불’의 열 가지 위신력을 찬탄하여 말하고, 저 부처님의 광명이 지닌 신통력을 널리 찬탄하며, 또 계(戒)·정(定)·혜(慧)·해탈(解脫)·해탈지견(解脫知見)을 찬탄하면, 그 사람이 이 법문을 듣고 나서 80억 겁 동안의 생사의 죄를 소멸한다. 그리하여 지옥의 맹렬한 불길에 맑고 시원한 바람으로 변하며, 하늘 꽃을 불어 날리며 꽃 위마다 모두 화신불(化身佛)과 화신 보살이 있어 이 사람을 영접한다. 그리하여 한 찰나에 곧 7보 연못 가운데 있는 연꽃 속에 왕생한다.²⁴⁾

23) 『佛說觀無量壽佛經』(T12, 345c) “下品上生者, 或有眾生作眾惡業, 雖不誹謗方等經典, 如此愚人, 多造惡法, 無有慚愧, 命欲終時遇善知識, 為讚大乘十二部經首題名字。以聞如是諸經名故, 除却千劫極重惡業。智者復教合掌叉手, 稱南無阿彌陀佛。稱佛名故, 除五十億劫生死之罪。爾時彼佛, 即遣化佛, 化觀世音, 化大勢至, 至行者前, 讚言: ‘善哉! 善男子! 汝稱佛名故諸罪消滅, 我來迎汝 作是語已 行者即見化佛光明, 遍滿其室, 見已歡喜, 即便命終。乘寶蓮花, 隨化佛後, 生寶池中’”

24) 『佛說觀無量壽佛經』(T12, 345c-346a) “下品中生者, 或有眾生, 毀犯五戒、

라고 악업을 지은 중생도 왕생한다는 구제내용이다. 비록 갖가지 악업을 지었을지라도 선지식을 만나 단 10번만이라도 ‘아미타불’을 여래 십력(十力)과 오분법신(五分法身)을 찬탄한다면 지옥에 갈 80억겁의 죄가 소멸하고 화신 부처님과 보살들의 환대를 받아 왕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업자득의 인과업보를 초월하는 염불수행을 어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최하위의 일반인의 악업 중생이 왕생함에 대해서,

하품하생(下品下生)이라는 것은, 혹 어떤 중생이 불선업(不善業)과 5역(逆)과 10악(惡)을 지어 온갖 착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악업으로 인하여 마땅히 악도(惡道)에 떨어져 여러 겁을 거치면서 끝이 없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 그가 여러 가지로 안심시키고 위로하며 그를 위하여 미묘한 법을 말해 주고 염불(念佛)하도록 가르친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고통으로 꺾박받아 염불할 경황이 없으므로, 선우(善友)가 다시, ‘그대가 만일 염할 수 없다면 무량수불(아미타불)을 부르도록 하라’고 하면, 지극한 마음으로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열 번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면, 부처님 명호를 부른 공덕으로 일순간에 80억 겁 동안 지은 생사의 죄가 소멸한다. 그리하여 목숨이 끊어질 때 금련화(金蓮花)가 마치 태양처럼 그 사람 앞에 있는 광경을 보게 되고, 한 찰나에 곧 극락세계의 연꽃 속에 왕생한다.²⁵⁾

八戒及具足戒，如此愚人，偷僧祇物，盜現前僧物，不淨說法，無有慚愧，以諸惡法而自莊嚴。如此罪人，以惡業故應墮地獄。命欲終時，地獄眾火一時俱至，遇善知識以大慈悲，即為讚說阿彌陀佛十力威德，廣讚彼佛光明神力，亦讚戒、定、慧、解脫、解脫知見。此人聞已，除八十億劫生死之罪。地獄猛火化為涼風，吹諸天華。華上皆有化佛菩薩，迎接此人”

25) 『佛說觀無量壽佛經』(T12, 346a) “下品下生者，或有眾生作不善業，五逆、十惡，具諸不善。如此愚人以惡業故，應墮惡道，經歷多劫，受苦無窮。如此愚人臨命終時，遇善知識，種種安慰，為說妙法，教令念佛，彼人苦逼不遑念佛。善友告言：‘汝若不能念彼佛者，應稱歸命無量壽佛’。如是至心令聲不絕，具足十念，稱南無阿彌陀佛。稱佛名故，於念念中，除八十億劫生死之罪。命終之時見金蓮花，猶如日輪，住其人前，如一念頃，即得往生極樂

라고 최상의 악업을 지은 중생이라도 구제하여 왕생하게 하는 설법이다. 여기서는 그야말로 가장 무도한 중생이 선지식을 만나 마음 깊이 아로새겨 염불하지 못할 경우 단지 열 번의 ‘나모아미타불’이라고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일컬은 공덕으로 80억겁의 나고 죽는 중죄가 소멸하고 임종할 때에 금련화가 그 사람 앞에 나타나면 극락세계의 연꽃에 가서 태어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열 번의 칭명염불이 바로 중국에서 마을마다 집집마다 고을마다 ‘나모아미타불’의 염불 소리가 울려 퍼져서 일반 백성들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민중의 신앙이 되었다. 이처럼 『관경』의 삼복왕생(三福往生)은 일심(一心)의 정념(正念)으로 정선(定善)인 13관의 염불과 제행을 겸수하는 산선(散善)인 칭명염불(稱名念佛)을 닦는 것이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신심을 내어 극락정토인 보토(報土)에 곧바로 왕생한다는 즉득왕생(卽得往生)의 화생과 자기의 힘으로 변화토에 방편으로 왕생하는 방편왕생(方便往生)의 태생 두 가지로 구분하기도 한다. 즉득왕생은 『무량수경』의 48원 가운데,²⁶⁾ 제18원 타력염불왕생이며, 방편왕생은 제20원 자력염불왕생이다. 여기에 제19원 제행왕생을 더해 삼배왕생(三輩往生)으로 나누기도 한다. 따라서 한중일 삼국의 정토의 제사들은 이 세 가지 원을 기반으로 왕생의 근거를 삼았다. 특히 고대 한국에서는 원효성사의 염불신앙을 대중화시켜서 통일신라에서 여산혜원을 본받아 건봉사(乾鳳寺)에서 만일염불결사를 통해서 일반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염불왕생신행이 고려에서도 중

世界”

26) 『佛說無量壽經』(T12, 268a) “設我得佛, 十方眾生至心信樂欲生我國, 乃至十念, 若不生者, 不取正覺, 唯除五逆、誹謗正法。設我得佛, 十方眾生發菩提心修諸功德, 至心發願欲生我國, 臨壽終時, 假令不與大眾圍遶現其人前者, 不取正覺。設我得佛, 十方眾生聞我名號、係念我國, 殖諸德本、至心迴向欲生我國, 不果遂者, 不取正覺”

파는 성립하지 않았지만 영명연수의 영향을 받아 보조지눌과 원묘요세는 법성정토를 주창하였고, 여말선초에 염불과 선을 동일시하여 태고보우와 나옹혜근에 이르기까지 현세의 안심입명(安心立命)과 사후 왕생극락을 바라는 염불신행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다.²⁷⁾

나아가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 만일염불결사가 진행되었고, 일반 불자는 염불수행을 가장 손쉽게 수행하는 방편으로 삼는다. 이는 한국 불자들만의 신행형태가 아니고, 고대 인도와 중국, 한국과 일본의 일반불자가 공통으로 신행한 내용이다. 왜냐하면 현대와는 달리 근대에 이르기까지 일반 백성들은 거의 태반이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일상생활하면서 전문적인 참선이나 문자를 모르는 간경을 수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일반 백성의 신행은 간단한 진언이나 명호를 계속해서 외움으로써 생각 생각에 마음이 집중되어 끊이지 않고 이어진 신행이 고안된 것이다. 그리하여 특정의 소망을 내포한 진언보다 일반적인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의 명호를 불러서 각자의 소망을 담보한 신앙과 수행을 결합한 신행이 가장 적합한 포용성이었다. 이러한 신행방편이 바로 일상생활

27) 『삼국유사』에는 왕생 설화인 「육면비 염불서승」과 「포천산 오비구」, 「광덕과 엄장」, 미륵불과 아미타불의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설화가 전해진다. 여기서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경우는 왕생성불이 아닌 현생성불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 향가 「제망매가」가 소개되어 있어서 신라시대에 극락왕생이 민간신앙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입증하고 있다. 나아가 고려시대 보조지눌과 원묘요세를 거쳐서 태고보우와 나옹혜근에 이르러 선과 염불을 겸수하여 선염일치(禪念一致)하는 염불선의 염불화두로 이어진다. 조선중기에 나암보우는 왕생극락발원과 염불수행을 실행할 때에 극락에 자기가 태어날 연꽃이 피어난다는 것을 기술한 『권념요록』이 전해지고, 서산휴정은 보조지눌로부터 전해진 삼문수업과 불교수행을 참선과 간경, 염불과 주력을 드러낸 『선가귀감』과 『심법요초』에는 “참선이 염불이요, 염불이 참선”이라는 선염일치의 염불선을 지향하였다. 조선후기에는 백암성총의 『정토보서』, 금명보정은 백암을 이어받아 왕생정토를 예찬한 『백암정토찬』, 염불을 권장하는 명연의 『염불보권문』, 삼문수업(三門修業)을 피력한 진허팔관의 『삼문직지』 등에서 불교의 염불수행과 의례로 전해졌다.

속의 염불수행이 바로 다양한 신행을 포용한 칭명염불이다. 그러면 다음에 일상생활속의 염불신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일상생활속의 염불신행

근본불교와 초기불교에서 재가불자가 신행(信行)할 내용으로 삼은 것은 삼론(三論; 戒論·施論·生天論)이다. 이에 기초하여 삼보를 신앙하고 오분법신(五分法身)을 체득하는 신행과정을 최종 목표로 삼았다. 이어서 대승불교의 교학체계와 수행체계를 정리한 『대지도론』에서는 염불삼매와 마하반야바라밀의 관계를 논하면서 염불삼매와 반야바라밀의 관계를 불가분의 관계로 설정한다. 그 내용을 보면,

다시 다음에 어떤 보살이 염불삼매(念佛三昧)를 닦는다면 부처님께서 는 그들이 이 삼매에서 더욱 훌륭한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하여 반야바라밀 다경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곧 반야바라밀다의 초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신족(神足)을 나타내시어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시방 향하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세계를 두루 비추시고, 큰 몸을 나타내시어 청정한 광명과 갖가지 미묘한 모습[妙色]이 허공에 가득하였다. 부처님께서 대중 가운데 계시니 단정하고 수승 미묘[秀妙]함이 그에 미칠 자가 없어 마치 수미산왕이 바다 북편에 자리 잡고 있는 것과 같았다. 보살들은 부처님의 신통을 보고는 염불삼매에서 다시 훌륭한 이익을 증가시켰다.’²⁸⁾

28) 『大智度論』 卷1(T25, 58a) “復次, 有菩薩修念佛三昧, 佛為彼等欲令於此三昧得增益故說般若波羅蜜經。如般若波羅蜜。初品中說：佛現神足, 放金色光明, 遍照十方恒河沙等世界, 示現大身, 清淨光明, 種種妙色滿虛空中。佛在眾中, 端正殊妙, 無能及者。譬如須彌山王, 處於大海, 諸菩薩見佛神變, 於念佛三昧倍復增益”

라고 『대지도론』의 초두에 논하고 있다. 이러한 염불삼매의 내용은 색신염불에서 법신염불로 법신염불에서 실상염불로 전개되는 염불 수행의 깊이를 보여준다.²⁹⁾ 나아가 『왕생론』³⁰⁾에서는 예배(禮拜)와 찬탄(讚嘆), 작원(作願), 관찰(觀察), 회향(迴向) 오념문(五念門)의 수행을 통해 의보와 정보의 장엄을 관찰하여 일체가 청정을 체득해서 자리이타(自利利他)한 정토수행에 대해서 논한다.

한편 중국의 천태교학에서³¹⁾ 최초의 수행계위로 육근참회(六根懺悔)와 더불어 오품제자위(五品弟子位) 가운데 오회(五悔)³²⁾의 보조신

29) 『十住毘婆沙論』 卷12(T26, 86a) “是偈次第略解四十不共法六品中義。是故行者先念色身佛。次念法身佛。何以故。新發意菩薩。應以三十二相八十種好念佛。如先說。轉深入得中勢力。應以法身念佛心轉深入得上勢力。應以實相念佛而不貪著”

30) 『無量壽經優波提舍願生偈』(T26, 231b) “此願偈明何義？觀安樂世界，見阿彌陀佛，願生彼國土故。云何觀？云何生信心？若善男子善女人，修五念門成就者，畢竟得生安樂國土，見彼阿彌陀佛。何等五念門？一者禮拜門；二者讚歎門；三者作願門；四者觀察門；五者迴向門。云何禮拜？身業禮拜阿彌陀如來、應、正遍知，為生彼國意故。云何讚歎？口業讚歎，稱彼如來名。如彼如來光明智相，如彼名義，欲如實修行相應故。云何作願？心常作願，一心專念畢竟往生安樂國土，欲如實修行奢摩他故。云何觀察？智慧觀察，正念觀彼，欲如實修行毘婆舍那故。彼觀察有三種。何等三種？一者觀察彼佛國土功德莊嚴；二者觀察阿彌陀佛功德莊嚴；三者觀察彼諸菩薩功德莊嚴。云何迴向？不捨一切苦惱眾生，心常作願迴向為首，成就大悲心故”

31) 『宗鏡錄』 卷88(T48, 896a) “問。於宗鏡中最初信入有何位次 答。若圓信人初有五品位。台教據法華經分別功德品。依圓教立五品位。第一品初發一念信解心。第二品加讚誦。第三品加說法。第四品兼行六度。第五品正行六度。從初品須依靜處建立道場。於六時中行四三昧。懺六根罪修習五悔”

32) 『天台四教儀』(T46, 779a-b) “五悔者。有二。一理二事。理懺者。若欲懺悔者。端坐念實相。衆罪如霜露。慧日能消除。即此義也。言事懺者。晝夜六時三業清淨。對於尊像披陳過罪。無始已來至于今身。凡所造作。殺父。殺母。殺阿羅漢。破和合僧。出佛身血。邪淫偷盜。妄言綺語兩舌惡口。貪瞋癡等。如是五逆十惡及餘一切。隨意發露更不覆藏。畢故不造新。若如是則外障漸除。內觀增明。如順流舟更加櫂棹。豈不速疾到於所止。修圓行者亦復如是。正觀圓理事行相助。豈不速至妙覺彼岸。莫見此說便謂漸行。謂圓頓無如是行。謬之甚矣。何處天然彌勒自然釋迦。若纔聞生死即涅槃煩惱即菩提。即心是佛不動即到。不加修習便成正覺者。十方世界盡是淨土。觸向對面無非覺者。今雖然即佛。此是理即。亦是素法身。無其莊嚴。何關修證

행을 제시한다. 말하자면 모든 불자가 신행(信行)할 내용에 참회(懺悔)하고 권청(勸請)하며, 수희(隨喜)하고 회향(廻向)하며, 발원(發願)하는 것이다. 먼저 참회(懺悔)는 지난 세상과 현세에 스스로 지은 모든 악업과 탐욕과 성냄·어리석음·교만함·의심함·자기중심적 견해에 빠짐으로 인해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모든 악업을 부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남김없이 참회한다는 결의를 보이는 것이다. 다음에 권청(勸請)은 사방세계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과 가장 먼저 깨달음을 성취한 분에게 위없는 미묘한 법문을 설하여 주실 것과 부처님께서 영원히 열반에 들어가지 마시고 이 세상에 머무시면서 모든 중생에게 이익과 복락(福樂)을 베풀어 주실 것을 소청하는 것이다.

셋째로 수희(隨喜)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종류의 중생과 수행승, 보살과 부처가 닦아 갖춘 훌륭한 공덕을 질투심 없이 기뻐하는 것이다. 넷째로 회향(廻向)은 스스로 부처님을 예찬하고 공양한 복덕과 부처님께서 오래 머물러 법문해 주시길 청한 공덕, 함께 기뻐하고 참회한 모든 선근(善根)을 중생들의 복덕과 보리(菩提)를 이루는데 그 공덕을 돌리는 것이다. 끝으로 발원(發願)은 스스로가 어떻게 하겠다는 보다 분명한 결심이다. 이러한 발원은 대체로 이치와 일에 막힘이 없고 불법과 세간에 걸림이 없는 삼보(三寶)의 공덕을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지은 공덕을 모두 회향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중생이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업장과 잘못 보고 트집 잡고 비방하고, 나와 법에 집착하여 일으켰던 모든 업장들이 남김없이 소멸될 것과 모든 중생을 빠짐없이 제도할 것을 발원한다. 이어서 이 발원심이 끝까지 변질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모아서 일상생활 속에서 염불로 바꾸어 신행한다.

者也。我等愚輩。纔聞即空便廢修行。不知即之所由。鼠啣鳥空廣在經論。尋之思之。二勸請者。勸請十方諸如來留身久住濟含識。三隨喜者。隨喜稱讚諸善根。四迴向者。所有稱讚善。盡迴向菩提。五發願者。若無發心萬事不成。故須發心以導前四。是爲五悔。下去諸位直至等覺。總用五悔。更不再出。例此可知”

왜냐하면 오회신행의 대상은 바로 부처님을 향한 신행자의 우주법계에 충만한 실상인 법신을 자각하여 자기화하는 발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실제적인 참회에서는 이 오회신행을 포괄하는 대자대비로 중생을 제도하고 지혜와 공덕을 원만히 갖추신 부처님이나 보살님에 대한 예경의식을 먼저 하고서, 그런 다음에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속에서 세상이 다할 때까지 그 깊은 지혜와 공덕을 널리 전파하겠다는 찬탄의 염불수행을 실천한다. 그리고 좋은 향과 등불과 장엄구 등을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과 아울러 깊은 믿음과 참된 신행을 통해서 부처님에게 공양한다는 것을 표방하는 공양의식과 부처님 앞에서 염불하던 신행방편이 일상의 생활에서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는 생활하면서 염불하고 염불하면서 수행하는 것이 최상의 참회방법이며 기도수행이다.

이러한 오회(五悔)의 신앙과 수행을 결합한 염불수행이 바로 일상생활속의 염불수행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참회방법 중 최상으로 용이하게 실천되고 있다. 그러면 ① 이러한 오회의 신행이 일상생활속의 염불수행으로 대치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② 또 오회신행이 염불수행으로 대치될 때에 그 공능도 같아질 수 있는 것인가? ③ 그 결과도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세 가지 의문 가운데 ①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오회의 수행을 보현보살의 10가지 광대한 행원으로 확대하면³³⁾ 1) 항상 부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는 예경제불원(禮敬諸佛願), 2) 모든 부처님을 칭찬하고 찬탄 하는 칭찬여래원(稱讚如來願), 3) 이웃을 위해 널리 공

33) 『大方廣佛華嚴經』 卷40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T10, 844b)
 “善男子！如來功德，假使十方一切諸佛，經不可說不可說佛剎極微塵數劫，相續演說，不可窮盡。若欲成就此功德門，應修十種廣大行願。何等為十？一者、禮敬諸佛，二者、稱讚如來，三者、廣修供養，四者、懺悔業障，五者、隨喜功德，六者、請轉法輪，七者、請佛住世，八者、常隨佛學，九者、恒順眾生，十者、普皆迴向”

양을 베푸는 광수공양원(廣修供養願), 4) 스스로 지은 업장을 참회하는 참회업장원(懺悔業障願), 5)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하는 수희공덕원(隨喜功德願), 6) 설법해 주시길 소청하는 청전법륜원(請轉法輪願), 7)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계시길 소청하는 청불주세원(請佛住世願), 8)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상수불학원(常隨佛學願), 9) 항상 중생을 따르는 항순중생원(恒順眾生願), 10) 지은 모든 공덕을 널리 회향하는 보개회향원(普皆迴向願) 등이다. 그런데 이 10대 행원을 수행한 공덕의 과보를 설하는 내용 가운데,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치려는 마지막 찰나에 온갖 기관은 모두 무너지고, 친속들은 모두 떠나게 되며, 모든 세력은 모두 상실되어, 정승이나 대관이나 궁전 안팎의 코끼리·말·수레·보배나 숨은 광들은 하나도 따라오지 않더라도 이 열 가지 행원은 서로 떠나지 아니하고, 어느 때에나 앞길을 인도할 것이다. 잠깐 동안에 극락세계에 가서 나게 되어 곧 아미타불과 문수사리보살·보현보살·관자재보살·미륵보살 등을 뵈울 것인데, 이 보살들은 몸매가 단정하고 공덕을 구족하여 아미타불을 둘러싸고 앉아 있을 것이다.³⁴⁾

라고 10대 행원의 공능을 설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왜 오회(五悔)와 10대 행원의 신행을 아미타불의 염불수행으로 대치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극락세계의 교주이신 아미타불에게 귀의하는 언어적 분석을 해보면³⁵⁾ 산스크리트어 ‘나모아미타불(Namo

34) 『大方廣佛華嚴經』 卷40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T藏10, 844b) “是人臨命終時, 最後剎那一切諸根悉皆散壞, 一切親屬悉皆捨離, 一切威勢悉皆退失, 輔相、大臣、宮城內外, 象馬車乘, 珍寶伏藏, 如是一切無復相隨, 唯此願王不相捨離, 於一切時引導其前。一剎那中即得往生極樂世界, 到已即見阿彌陀佛、文殊師利菩薩、普賢菩薩、觀自在菩薩、彌勒菩薩等, 此諸菩薩色相端嚴, 功德具足, 所共圍遶”

35) 여기서 나모(namo)는 귀의(歸依) 또는 귀명(歸命)이고, 아(a)는 무(無)이고 미타(mita)는 량(量)이며, 붓다(buddha)는 부처님이다. 이를 종합하면 ‘한량없는 부처님께 목숨 바쳐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이다. 다시 풀이하자면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총괄하는 무량한 지

amita-buddha)’은 제불의 가피(加被)를 동반한다. 따라서 극락정도와 아미타불을 설한 대승경전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의 모든 이론과 신행은 오회와 10대행원을 포괄한 ‘나모아미타불’로 대체되어 80억겁의 중죄를 소멸할 수 있는 최상의 참회신행이 바로 염불신행이다. 그래서 ②와 ③의 의문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여기서 덧붙여 말하자면 여래십호(如來十號)³⁶와 십팔불공법(十八不共法)³⁷에는 무한한 부처님의 공능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 명호만 불러도 부처님의 무연자비로 친연(親緣)과 증상연(增上緣)이 되어 감응도교(感應道交)한다.

그래서 옛적에는 일상생활속의 염불을 신행하면서 논밭을 일구고 가정의 살림을 하면서 행주좌와와 어묵동정의 일상생활 속에 ‘노는 입에 염불’하면 구업을 승화시켜 정업(淨業)으로 체현하는 신행생활을 강조하였다.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갖가지 일을 하면서 자기의 바람에 맞추어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을 비롯하여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따라보살, 준제보살, 화엄성중, 마하반야바라밀 등등의 불보살과 호법신중의 명호를 소리 내어 간절하게 부르는 칭명염불을 하거

혜의 광명(amitābha)과 무량한 자비의 생명(amitāyus)을 갖추신 아미타불에게 귀의한다.’는 의미다.

36) ① 如來(Tathāgata), ② 應供(Arhat), ③ 正徧知(Samyak-sambuddha), ④ 明行足(Vidyā-carāṇa-sam panna), ⑤ 善逝(Sugata), ⑥ 世間解(Loka-vid), ⑦ 無上士(Anuttara), ⑧ 調御丈夫(Puruṣa-dāmya-sārathi), ⑨ 天人師(Śāsta-deva-manuṣyāṅām), ⑩ 佛(Buddha), 世尊(Bhagavat) 등이다.

37) 十八佛不共法(aṣṭādaśa-āveṇika-buddha-dharma)은 일반적으로 十力과 四無所畏, 三念住, 大悲를 갖추신 것을 말한다. 이는 초기경전에 산재되어 있던 부처님의 능력들이 부파불교 시대에 이르러 18가지로 정리된다. 그래서 대승불교 이전과 이후로 내용에 차이가 있다. 대승불교의 불공법은 ① 身無失, ② 口無失, ③ 念無失, ④ 無異想, ⑤ 無不定心, ⑥ 無不知已捨心, ⑦ 欲無減, ⑧ 精進無減, ⑨ 念無減, ⑩ 慧無減, ⑪ 解脫無減, ⑫ 解脫知見無感, ⑬ 一切身業隨智慧行, ⑭ 一切口業隨智慧行, ⑮ 一切意業隨智慧行, ⑯ 智慧知過去世無碍無障, ⑰ 智慧知未來世無碍無障, ⑱ 智慧知現在世無碍無障 등이다.

나, 마음으로 불보살의 능력을 생각하는 관상(觀想)염불을 하거나 또한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떠올리는 관상(觀像)염불을 하거나 제법의 자성이 본래 없는 실상을 관하면서 염불하는 실상(實相)염불 등 자기의 근기에 알맞은 수행을 실천하여 유구필응(有求必應)한다.

여기서 근기가 하열한 사람은 우선 소리를 내어 여래십호의 공덕을 생각하면서 무아(無我)가 실현되도록 간절하게 염불한다. 이러한 염불의 연원은 대승불교의 수계의식에서 참회를 갈무리하여 구성된 것이다.³⁸⁾ 그래서 이는 무량한 과거로부터 지은 모든 악업이 불보살님의 공능에 의해서 소멸한다. 그리하여 자기의 허물을 불보살님께 참회함으로서 자기의 죄가 씻겨서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초기불교로부터 전해진 자업자득(自業自得)의 인과응보(因果應報)와는 배치되는 듯하다. 하지만 초기불교로부터 전해진 무상(無常)한 현실은 괴로움[苦]이니 본래 모든 존재는 연기하는 텅 빔의 공(空)이기 때문에 일체는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없는 존재[無我]로 해탈열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유효하다.

따라서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자기의 업보를 녹이는 공능이 발휘된다. 이것은 중국 동진(東晉)의 여산혜원(廬山慧遠)으로부터 비롯되어 당나라 초기와 중기와 말기를 거치면서 정토종이 성립하여 왕생정토의 수행지침으로 살아가는 청정한 몸과 마음을 이루

38) 우리가 계를 받을 때에 염하는 참회진언의 산스크리트어는 ‘Om sarva buddha bodhisattvāya svāhā’이다. 여기서 옴(Om)은 인도에서 A(창조), U(유지), M(파괴)가 합성된 내용으로 힌두이즘의 三神一體의 내용에서 우주를 창조한 Brahmā와 창조된 우주를 보호하여 유지하는 Viṣṇu, 새로운 세계를 재창조하기 위해 날근 것을 파괴하는 Śiva를 함께 통합해서 부르던 것이 불교에 유입되어 法身과 報身, 化身 또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합성해서 그 의미를 변형시켰다. 그리고 sarva는 일체 또는 모든, buddha는 覺者인 부처님, bodhisattvāya는 覺有情인 보살, svāhā는 성취하소서! 등이다. 전체 진언을 해석하면 ‘옴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이시여! 거두어주소서!’라고 번역할 수 있다.

어 안심입명(安心立命)하고, 죽어서는 정도에 왕생하는 신행을 일반 민중에게 널리 권장함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속의 염불수행이 고을마다 집집마다 ‘나모아미타불’이 신행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신행형태는 당나라 말기와 오대, 송나라 초기를 거치면서 선과 염불이 만나면서 염불선(念佛禪)도 확립된다.³⁹⁾

이어서 중국 송나라 이후 목조선과 간화선에서는 수행중심이던 것이 염불을 공안으로 삼아 염불공안이 확립되어 신앙과 수행이 결합한 염불신행이 일반화된다. 이러한 염불신행이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말기 태고보우와 나옹혜근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권장되어 명·청의 4대 사들과 더불어 조선 중기 청허휴정에 의해서 선염일치(禪念一致)가 이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염불자시수(念佛者是誰)의 염불선도 실 천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일상생활속의 염불신행이고 염불신행이 바로 일상생활이다. 이러한 공능은 과거와 현재의 업장을 녹이는 관건 이고 조사선에서 주창한 무염오(無染汚)수행이란 정업(淨業)을 통해서 불보살의 자기화를 구현하는 신행이다.

Ⅲ.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일상생활속의 염불신행”이라는 논제 하에 여러 경전과 논서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추적하여 근거로 삼아 논해보았다. 그 내용을 다시 간략히 간추리면, 먼저 염불신행의 근기론과 수행론에서 여러 경론에 언급된 근기론에서 수법행(隨法行)과 수신행(隨信行), 사실단(四悉檀)과 삼취(三聚)를 검토해서 정업(淨業)을 살펴보았다. 다음에 염불신행의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해서는 『관경』을 통해

39) 법상(2006), 296-327 참조.

서 다양한 왕생신행을 검토하여 염불신행의 포용성을 고찰하였다. 끝으로 일상생활속의 염불수행은 불교의 중요한 신행인 오념문을 비롯하여 오회와 10대 행원을 포괄하고 포용하는 염불이 참회방법과 연관된 것임을 고찰해 보았다. 그러면서 일상생활 속의 염불신행이 바로 가장 용이한 신행의 지침임을 검토해 보았다.

덧붙여 말하자면 불교의 다양한 근기와 수행, 그리고 다양한 수행들을 염불이라는 신행(信行)을 통해서 신앙과 수행을 겸비하게 한다. 초기불교와 부파불교에서는 전문적인 수행자 중심의 불교에서 대승불교에서는 일반대중을 위한 신행형태로 전환되었다. 그 내용은 불탑 신앙을 바탕으로 일부 부파불교의 수행자들에 의해서 실천되었던 신행이 중국의 위진 남북조의 불교연구의 기간을 거쳐서 일부 선각자들에 의해서 염불신행이 강조되어 당나라 초기 정토종이 성립되고, 중기와 말기에는 일반민중에게 어필되었다.

이러한 염불신행이 오대와 송나라를 거치면서 선과 염불이 만나 선염쌍수(禪念雙修)의 신앙과 수행이 결합하여 마침내 하나의 신행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통일신라 원효성사의 대중화와 만일염불결사를 완성하여 마치면서 일반민중에게 현실에서 안심입명과 사후의 왕생극락을 염원하는 바람을 충족하게 하였다. 나아가 고려 초기에서는 비록 하나의 종파로 성립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불교의 종파에 침투되어 염불신행이 보편적이었지만 일부 선승들의 비판도 받으면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 여말선초에 선과 염불이 결합한 염불선도 실천되어 조선중기 청허휴정에 의해서 선염일치(禪念一致)내지는 선정일치(禪淨一致)가 확립되어 조선후기와 근대와 현대를 거치면서 면면이 이어져 신행되었다.

이러한 염불신행은 결코 불교의 수행 목적과 괴리되지 않는 신행방법이고, 모든 근기와 수행을 포괄하면서 다양성의 난점을 보완하여

포용한 일체중생의 구제사상을 구현하는 첩경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대승불교의 특성 가운데 신앙의 불교와 회향과 발원의 불교를 융합한 참회방법인 것이다. 더구나 일반 민중을 계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문적인 참선이나 간경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염불신행은 보다 용이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일반민중은 일상생활 속에서 염불신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염해지는 불념자념(不念自念)의 ‘노는 입에 염불하세!’라는 슬로건이 가능하다. 말하자면 ‘노는 입에 염불하세!’ ‘걸음 다다 소리마다 생각마다, 나모아미타불 관세음보살’로 늘 항상 일상생활에서 염불하라는 금언인 것이다. 그래서 살아서는 안심입명(安心立命)하고 죽어서는 아미타불에 의해서 왕생극락을 약속 받고 심신의 청정을 체득한다.

<참고문헌>

대정신수대장경 : T

般若 譯, 『大方廣佛華嚴經』 卷40(T10)

康僧鎧 譯, 『佛說無量壽經』 卷下(T 12)

鳩摩羅什 譯, 『佛說阿彌陀經』(T 12)

曇良耶舍 譯, 『佛說觀無量壽佛經』(T12)

鳩摩羅什 譯, 『大智度論』 卷1(T25)

鳩摩羅什 譯, 『十住毘婆沙論』 卷12(T26)

婆藪槃豆 造·菩提流支 譯, 『無量壽經優波提舍願生偈』(T26)

馬鳴 造·真諦 譯, 『大乘起信論』(T32)

智者 說·灌頂 述, 『妙法蓮華經玄義』(T33)

元曉 撰, 『遊心安樂道』(T47)

諦觀 錄, 『天台四教儀』(T46)

延壽 集, 『宗鏡錄』 卷88(T48)

법상(2004), 「西山休靜의 禪淨觀에 대한 一考」, 『淨土學研究』 제7집, 如來藏.

강동균(2006), 「淨土敎의 信觀」, 『淨土學研究』 제9집, 如來藏.

한태식(보광, 2006), 「대승불교의 信觀」, 『淨土學研究』 제9집, 如來藏.

법상(정광균, 2011), 「아미타불의 신앙과 왕생」, 『전자불전』 제1집, 如來藏.

정광균(법상, 2016), 「『관무량수경』의 16관법과 염불선」, 『淨土學研究』 제25집, 如來藏.

■ Abstract

Buddhānusmṛti's faith practice in daily life

Jung Kwang-gyun(Ven. Bup-sang)

This paper traces and discusses the references mentioned in the dharma and shastras under the topic “Buddhānusmṛti's faith practice in daily life”. To recap it briefly, first of all, in the theory of ability and practice of buddhist chanting, in the theory of ability mentioned in the Dharma and shastras, the practice of teaching and the practice of faith, four truth standards. After reviewing the three groups and the three groups, we looked at the clean acts. Second, the diversity and inclusiveness of rebirth in the other world faith and practice were reviewed through 『GwanMuryangsu-Sūtra』, to examine the diversity of Rebirth faith and practice. Third, buddha chanting faith and practice in everyday life includes the five kinds of contrition and ten big action and vow, including five types of mindfulness, which are important faith and practice of Buddhism. The comprehensive inclusion of buddha chanting is related to the repentance method. In addition, we examined that buddha chanting faith and practice in daily life is the guideline of the easiest faith and practice.

Keywords ● buddhānusmṛti, faith and practice, rebirth, four truth standards, clean acts, three groups

■ 논문투고일: 2020. 5. 15 ■ 심사완료일: 2020. 5. 31 ■ 게재확정일: 2020. 6. 2